

# 구비전승의 <三台星>과 <北斗七星> 神話 一考

-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의 상관성 및 신앙의 양상을 중심으로 -

박종성\*

## <논문개요>

본고는 구비전승되는 별자리 신화인 <삼태성>과 <북두칠성 유래담>을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서사적 연계성을 보이는 <제석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포괄하여 별자리 신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찰했다. 나아가 <삼태성>-<제석본풀이>-<주몽신화>의 계열과, <북두칠성 유래담>-<칠성본풀이>-<사신칠성본풀이>-<금와신화>와의 계열을 설정해 보았다.

前者의 계열은 <삼태성>과 <제석본풀이>, <삼태성>과 <주몽신화>와 상관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고찰했다. 또한 <제석본풀이>가 <주몽신화>와 연계되기에 <삼태성> 신화의 두 가지 양상이 개별적이지 않고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후자의 계열은 <북두칠성 유래담>과 <칠성본풀이>, <사신칠성본풀이>와 <금와신화>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칠성신앙의 양상을 고찰했다. 그 결과 칠성관련 신화가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에 연결되어 있는 양상과 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논의이지만, 한국의 별자리 신화들이 크게는 한국의 신화적 그물망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별자리 신화, 삼태성, 제석본풀이, 주몽신화, 북두칠성유래담, 칠성본풀이, 사신칠성본풀이, 금와신화, 칠성신앙, 무속신화, 건국신화

\* 서울대 강사

## 차 례

1. 글머리
2. 〈삼태성〉과 〈제석본풀이〉
3. 〈北斗七星 유래담(孝不孝橋)〉과 〈七星본풀이〉
4. 〈삼태성〉과 〈복두칠성 유래담〉, 그리고 〈제석본풀이〉와 〈칠성본풀이〉
5. 결론에 대신하여

## 1. 글머리

한국의 경우, 별자리 신화의 口碑傳承이 다른 신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파편적이다. 우리의 창세신화에 성신의 생성에 관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노래하고 있고, 星辰信仰에 관한 기록들을 전하기는 하지만, 口碑傳承의 자료로 별자리 생성의 내력에 관한 구체적이고 온전한 敍事를 다양하게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별자리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나 별자리 신앙과 관련한 신화 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口碑傳承의 過程에서 심각한 變異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이들 신화의 구비전승 경로가 다변화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을 터이다. 사정이 그런 만큼 口碑傳承의 별자리 신화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별자리 그림들은 별자리 신앙의 오랜 내력을 증거하고 있지만 실상 신화의 전승 양상에서 그런 상응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논의의 난점이 있다. 별자리 신앙과 관련한 특별한 기원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신화에서 그런 상응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 역시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구비전승되는 우리네 별자리 신화는 별자리 신앙과 상응하는 서사적 내용을 전승시키지는 않는 채, 그저 인간세상의 절실한 문제들을 알아 해결해주는 신으로서의 성격이 별자리 신화의 신들의 성격일 따름이지 특별하게 별자리 신화만의 개별적인 성격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의 별자리 신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하지 못한다.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제한적인 자료, 곧 비교적 상호 관계가 명료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별자리 신화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하나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하게 된다. 다루지 못한 자료들을 포괄하여 후속논의를 함으로써 별자리 신화에 관한 입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別稿를 기약한다.

따라서 본고는 구비전승되는 별자리 신화인 〈삼태성〉과 〈북두칠성 유래담〉을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후에 서사적 연계성을 보이는 〈제석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포괄하여 별자리 신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태성〉-〈제석본풀이〉 계열과 〈북두칠성 유래담〉-〈칠성본풀이〉 계열을 대조·비교하고, 이어서 〈주몽신화〉와 〈금와신화〉의 관련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 2. 〈삼태성〉과 〈제석본풀이〉

三台星의 유래를 전하는 자료를 아래에 제시한다.<sup>1)</sup>

- (1) 밤하늘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삼형제 별이 있는데 三台星이라 부른다.
- (2) 흑룡담 늪가 마을에 유복자로 태어난 삼태자가 어머니와 살았다.
- (3) 어머니에 의해, 삼태자는 각각 스승들을 찾아 십 년 동안 학문과 재주를

1) 김명환 수집·정리, 『민담집 삼태성』, 연변인민출판사, 1983, 41-49면 정리(박정희 구술). 이 자료가 온전하게 조선족만의 개별성을 띤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이웃 민족인 만주족 등에서도 같은 유형의 자료가 전승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선족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에 일단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한국과 만주족, 몽골 신화와의 밀접한 연계성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변의 조선족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배우고 돌아왔다.(만이는 손바닥을 한 번 치면 구만리를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능력(축지법)을, 둘째는 한 쪽 눈만 감으면 다른 한 쪽 눈으로 구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셋째는 십팔반무예에 능통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 (4) 어느 해 여름날, 갑자기 광풍이 불고 비가 퍼붓고 난 후, 해가 사라지고 별들만이 남았다.
- (5) 해가 사라진 지 사흘이 되자, 어머니가 삼태자에게 해를 찾아오라며 떠나보냈다.
- (6) 삼태자는 각각 스승들을 찾아갔으나 해의 행방을 알지 못해 결국 만이의 스승의 스승을 찾아가 해가 사라진 연유를 알았다.
- (7) 연유인즉, 흑룡담의 암수 黑龍 두 마리가 하늘에 기어들어 행패를 부리다가 암룡이 해를 삼키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자 수놈도 따라 올라가 하늘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었다.
- (8) 삼태자가 흑룡담의 두 흑룡과 치열하게 대결하여 마침내 해를 삼킨 암룡이 해를 토하게 했다.
- (9) 인간 세상에 다시 밝은 날이 돌아왔다.
- (10) 삼태자는 계속 암수 흑룡과 싸워 한 마리는 죽였으나, 다른 한 마리가 흑룡담으로 도망가 버렸다.
- (11) 흑룡담으로 도망간 흑룡이 다시 해를 삼키지 못하도록 삼태자가 하늘에 올라 밤하늘에서 해를 지키는 삼 형제 별이 되었으니 곧 삼태성이다.

제시한 신화에 의하면, 삼태성은 해가 사라진 밤하늘에서 아침까지 해가 다시 떠오르도록 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삼태성은 큰곰자리에 딸린 자미성(紫微星)을 지키는 별로서, 각 한 쌍씩의 상태성(上台星)·중태성(中台星)·하태성(下台星)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동양에서의 삼태성은 북두칠성 아래에 마치 사슴이 뛰어간 발자국처럼 세 쌍의 별이 연이어 있는 별자리이다. 서양 별자리로는 큰곰자리에서 큰곰의 발인데, 겨울과 봄에 북두칠성 바로 아래쪽에 나타난다<sup>2)</sup>. (그림 1 참조).

---

2) 삼태성에 관한 소개는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4쇄), 현암사, 2002, 108-124면에서 참조했다.

한편 高句麗의 古墳 별자리 그림들에서도 三台星에 견줄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소 方位의 차이를 보이지만 직관적으로 북두칠성 아래의 三星이나 東西 雙三星의 모습이 三台星과 近似하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신화의 내용을 좇으면, 삼태성은 고구려 고분벽화 星宿圖에서 해가 있는 東便의 雙三星에 가까울 듯하나 북두칠성 아래의 三星이 삼태성 자리이니 이 둘의 관계를 신화를 근거로 확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고구려 덕흥리 고분의 성수도를 근거로 하면, 北壁에 러진 북두칠성 측면의 雙三星을 삼태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sup>4)</sup> 고구려 고분 속의 삼태성의 위치는 북벽 근처의 북두칠성 측면이나 아래의 쌍상점으로 인정된다. (그림 2·3·4·5 참조)<sup>5)</sup> 한편, 약수리 고구려 고분에는 雙三星 형태의 삼태성이 아니라 홀三星의 형태로 三台星이 나타나는 반면에, 東西의 청룡과 백호 측면에 각기 雙三星의 존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삼태성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東西 方位에 위치한 각각의 雙三星은 東方七宿의 心宿와 房宿에, 西方七宿의 參宿와 伐星에 비정하기도 한다.<sup>6)</sup>

한편 仙巖寺 七星圖를 보면, 중앙에 本尊인 熾星光如來, 左右에 협시보살로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이 위치하며, 치성광여래의 좌우측 상단이면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상위에 각각 14宿씩 28宿가 그려져 있고, 그 상단에 각각 三台六星으로 볼 만한 三星이 좌우에 위치해 있다. (그림 6 참조) 이 그림에서 각각 일광과 월광보살의 상단의 칠원성군이 있고 그 상단에 三台六星에 견줄만한 三星이 좌우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칠원성군

3) 東西 雙三星이라는 용어는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관념체계 연구」, 『진단학보』 82, 1996. 12에서 가져온다.

4) 김일권, 고대인의 천문우주관, 『강좌 한국고대사』 8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73면에서 이런 견해를 밝혀 놓았다.

5) 이후 고분 별자리 그림은 김일권, 「한국 고대인의 천문우주관」, 『강좌 한국고대사』 8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25-97면에 실린 자료를 가져온다.

6) 김일권은 앞의 논문(1996)에서 西方 雙三星을 參宿와 觜宿에 비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후, 각저총·무용총의 별자리 동정과 고대 한중의 북극성 별자리 비교 검토, 『한국과학사학회지』 22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2000에서 西方 雙三星을 參伐六星으로 동정했다.

좌우 상단의 각三星은 칠원성군의 권속으로 이해되거나, 그렇다면 이는 삼태육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東西(雙)三星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곧 일광보살을 동방의 해, 월광보살을 서방의 달로 치환하면 三台六星은 東西(雙)三星과 같은 형상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sup>7)</sup> 공교롭게도 고구려 고분 벽화의 東西 雙三星과 칠성도의 三台六星이 그림의 형태상 近似한 위치에 자리잡은 것에서 이 두 별자리가 특별하게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三台星에 착목하는 것은 신화를 통해 드러난 三台星에 대한 인식의 양상이다. 星宿圖에서 三台星이 북두칠성의 아래에 자리한다는 점, 신화에서 해를 보호하고 밤하늘을 지킨다고 하는 점, 東에서 西로 유행한다는 점 따위를 포괄하여 볼 때, 삼태성은 특별한 신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를 삼킨 黑龍은 五行의 北方과 물(水)에 대응되는 검은색을 띠고 있다. 신화에서도 흑룡담이란 곳에 거처하면서 東方의 해(火)를 삼켰으니 水克火에 해당한다. 또한 동방은 해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四神圖에서는 四靈 가운데 靑龍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해를 삼킨 흑룡은 靑龍을 제압한 黑龍의 양상으로 이해된다. <삼태성> 신화에 국한해서 보면, 태양을 수호하고 밤하늘을 지키는 삼태성이 東에서 西로 流行하기 때문에 삼태성은 다분히 <東方-태양-火>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삼형제가 黑龍을 제압하고 해를 다시 회복시켰다고 했으므로 三台星은 水를 제압할 수 있는 양

7) 별자리에 관한 신화적 인식은 천문학이나 고고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객관적 별자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민간의 인식과 부합하는 지를 따지는 것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다. 신화를 통한 민간의 별자리에 대한 인식이 실제 별자리와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그 양상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역시 객관적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별자리 설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또 다른 진실일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별자리 탐구와 아울러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설화를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소박하고 단순한 인식 역시 소중하다고 판단된다.

상 곧 ‘土克水’가 되어야 신화적 발상과 설정이 자연스러워진다. 토는 오행에 의하면 中央에 해당하며 黃色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三台星이 오행 가운데 중앙방위의 속성을 지녀야 하겠는데, 예로부터 三台星은 사람을 낚고 기르고 지켜주는 神將으로 인식되었고, 각 方位의 神將 역할을 하는 네 斗星(北斗七星·南斗六星·東斗五星·西斗四星)이 만나는 중앙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sup>8)</sup> 三台星이 四斗星의 양상만 놓고 보면 어김없이 중앙방위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三台星이 북방의 속성을 지닌 사악한 黑龍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한 신화적 발상과 설정은 四斗星과의 관계를 볼 때, 실상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신화의 문면에 따라, 三台星이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流行하면서 밤하늘을 지키면서 아침을 열어주는 해를 보호한다고 하면 “東→(北)→西”의 경로를 상정할 수 있을 터이고 그렇다면 “東三星→三台星(北三星)→西三星”의 모습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약수리 고분 등 고구려의 별자리 그림들에서 東·北·西에 각각 三星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려 놓은 것이 반드시 이런 까닭에서 연유했다고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北方의 三台六星, 南方의 南斗六星, 東方의 心房六星, 西方의 參伐六星의 체계는 옛 고구려인들의 별자리 인식이 雙三星을 중요시하는 특별한 관념을 지녔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七星圖의 三台六星이 熾星光如來, 左右에 협시보살로 자리잡은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의 상단에 그려진 것은 三台星의 流行經路和 무관하지만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삼태성〉 신화가 연변 쪽의 자료여서 논의의 전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한반도 본토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다시 가져와 논의를 이어간다.

옛날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아버지와 형제들이 관직을 구하러 경성으로 가서 딸이 혼자 집을 지켰다. 어느 날 시주를 받으러 온 한 스님이 있어 바리에 쌀을 퍼 담았으나 도무지 가득 차지 않았다. 스님의 말대

8) 안상현, 앞의 책, 118-119면 참조.

로 딸이 은 젓가락으로 한 알씩 9번 넣어도 차지 않았고, 딸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 속옷을 벗고 넣어도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스님이 마구간이라도 유숙하기를 청하였다. 한밤이 되자 스님이 추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면서 점차 부엌, 딸의 뒷방을 거쳐 딸의 방 병풍 뒤에까지 와서 잠을 자고는 아침에 사라졌다. 아버지가 돌아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도끼와 칼로 목을 베어 죽이려 하였으나 도끼와 칼이 부러져 죽이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을 토굴에 감금하고는 굶겨 죽이려 했다. 그 날부터 밤마다 그 스님이 나타나 음식을 주고 보살피 딸이 삼형제를 출산했다.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딸을 보고 그 연유를 물어 보고는 스님을 불렀다. 스님이 세 아들과의 친자임을 증명하는 신이한 행적을 보이자(삼형제가 스님의 옷자락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기/나막신을 신고 백사장을 지나면서 나막신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기) 아버지가 스님과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 스님은 神僧이었던 것이었다. 그 후 삼태자가 죽어 천상에 올라가 三台星이 되었다. 그들은 한 뼘속에서 세로로 태어나 죽어서는 묘를 옆으로 나란히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삼태성이 하늘에 뜰 때면 세로로 나오고 질 때면 옆으로 나란히 진다.(1923년 8월 17일 함흥군 서호진 내호 도상독군 어머니 이야기)<sup>9)</sup>

우선 주목되는 양상은 그 서사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제석본풀이>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중국 내 조선족의 <三台星>과 <제석본풀이>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긴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본토의 함흥지역에서 채록된 <三台星>과 <제석본풀이>는 명확하게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제석본풀이>는 제석님과 당금아기 사이에 아들 삼 형제가 태어나 三佛帝釋의 神格으로 좌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帝釋과 三佛帝釋이 三台星과 서사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아들 삼형제가 神으로 좌정하지 않고 예사 인간과 다르지 않게 죽어서 그 결과 三台星이 되었다 하여 무속신화와 다른 점을 분명하게 했다<sup>10)</sup>. 또한 삼형제의 묘 셋

9) 손진태, 『한국민화에 대하여』(김현선 외 공역), 도서출판 亦樂, 25-27면.

10) 제석님이 아들 삼형제에게 신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평본 <제석본풀이>와

이 옆으로 나란히 세워진 연유가 있어 하늘에 뜬 삼태성이 세로로 나왔다가 옆으로 나란히 진다고 하는 식으로 별자리의 변화를 설명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제석본풀이〉의 제석님이 천신이고 태양신인 접이 함홍의 〈삼태성〉에서의 神僧과 그 성격이 잇닿아 그 아들들 곧 三佛帝釋과 三台星이 같은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양의 정운학 구연본 〈삼태자풀이〉에는 삼불제석이 곧 삼태성임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삼태자를 三胎子로 漢字併記하고 있는 대목이다.

서장애기 初更에다 꿈을 꾸니 구슬 세 알 품에 품고 三台星과 놀았더라<sup>11)</sup>

본문 내용상 분명 三台星이며, 이후 채록자료에서도 삼태성을 三胎星으로 표기하는 등의 혼란이 보인다. 따라서 三台星의 精氣를 받아 태어난 세 쌍둥이 형제는 三胎子이면서 동시에 三台子인 셈이다. 〈三台星〉 신화의 삼형제가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했으니 세 쌍둥이(三胎子)가 분명하고 이들이 三台星이 되었기에, 三佛帝釋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정이라 판단된다. 〈제석본풀이〉 가운데 오직 정운학 口演本만이 三台子로 표기하고 있어 일반화에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위대한 인물이나 신으로 추앙받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三台星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三台星 神話에서처럼 세 쌍둥이가 등장하여 신이 되었으니 둘 사이의 연계가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sup>12)</sup>

같이 삼형제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불경을 읽고 불도를 퍼다가 죽었는데, 이후에 나라에 흉년이 들고 국상이 나는 등 재앙이 생겨 삼형제의 신체를 감장하고 불경 불도를 퍼서 삼불제석님으로 위성함으로써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각편도 있다.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3판), 문학사상사, 1988, pp.374-375 참고.

11) 임석재·장주근, 『關西地方巫歌』, 문화재관리국, 1966, 571면.

12) 三台星의 삼 형제는 遺腹子였다고 하였기에 父親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解慕漱와 柳花(河伯之女)의 결연으로 출생한 朱蒙이 역시 遺腹子인 것과 상통한다. 다만 주몽이 유복자이면서 부친의 혈통을 계승한 측면을 부각시킨 반면, 삼태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차이가 있다. 오히려 金蛙의 경우처럼, 부친이 누구인지 不明인 양상에 近似하다 할 것인데,

제석천은 천제석(天帝釋)·천주(天主)라고도 부른다. 《법화경》 서품에 나오는 ‘제석은 환인이며, 도리천주이고 옥황상제로서 제석이라 일컫는다’는 말에 따른 것이다. 옥계 제2천인 도리천의 주인이며, 수미산(須彌山) 위의 선견성(善見城)에 살면서 중턱에 있는 사천왕을 거느리고 불법과 불제자를 보호한다. 제석천은 본래 인도 성전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천신 중 벼락을 신격화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인드라)이었으나 불교에 수용되어서는 범천(梵天)과 함께 호법신신 역할을 맡게 되었다<sup>13)</sup>. 물론 무속신화의 제석신은 불교의 神名을借用한 결과일 뿐이어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논의하기 불편하나 神의 職能과 견주어 논의할 수는 있다. 곧 三台星이 아이의 출생과 성장을 호위하는 神將의 성격을 지닌 것은 三佛帝釋의 기능과 近似하다는 점이다.

日者陽之精 精而成鳥(張衡) 해라는 것은 陽의 精이요, 精이 까마귀를 이룬다.

陽數於一成於三 故日中三足鳥(春秋) 元命苞 陽은 一에서 시작하여 三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해 가운데 三足の 까마귀가 있다.

해를 보호하고 밤하늘을 지키는 별자리가 세 개의 별자리 곧 三台星인 것은 태양과 관련하여 陽의 精氣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관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석본풀이〉의 三佛帝釋 역시 父系인 帝釋이 太陽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sup>14)</sup>, 그렇다면 三台星과 三佛帝釋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인정될 수 있다. 더욱이 부친인 제석이 神職을 부여하고 물려나 있는 반면에, 그 아들 삼 형제가 三佛帝釋이 되어 인간사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신으로 좌정한 양상은, 三台星이 人間世上에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별자리인 점과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자료를 포괄하여 別稿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

13) 사이버 두산동아 대백과 사전 제석천 항목.

14) 서대석, 앞의 책, 77-83면.

제시한 〈삼태성〉 신화 두 편 가운데 하나는 분명하게 〈제석본풀이〉와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주몽신화〉와 연결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15)</sup>. 〈제석본풀이〉와 〈주몽신화〉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화임을 고려한다면 〈삼태성〉 신화의 두 자료 역시 서사적 내용의 相異함에도 불구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三台星이 북두칠성의 命을 좇아 인간사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되는 것은 승려가 七星閣에서 佛事를 행하고 法要를 시작할 때 칠성을 道場에 강림하기를 청하는 七星請과 時調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좌보필성(左輔弼星) 우보필성(右輔弼星) 삼태육성(三台六星) 이십팔수(二十八宿)와 주천열요제성군중(周天列曜諸星君衆)은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도량(道場)에 강림하시와 이 공양을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中略) 자미대제(紫微大帝)께서 성군(星君)을 거느리시니, 십이궁(十二宮)의 종성(宗星)은 태을신(太乙神)이라. 칠정(七政)이 함께 비쳐 성주(聖主)되시고 삼태(三台)가 보필하여 현신(賢臣)되니라.<sup>16)</sup>

北斗七星 못죽오신 알피 欄忙흔 발팔 알외웁논이/글이든 님을 만나 情엿말 못흐야 날이 새야온이/밤中만 三台星 差使 노하 셨별의게 分付흐여 주쇼셔<sup>17)</sup>

전자에서 左輔弼星은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에 해당하고 右輔弼星은 北斗大星七元星君인데,<sup>18)</sup> 三台六星이 賢臣의 역할을 맡고 있음이 확인된다. 北斗七星은 北斗神君으로 신격화되어 道敎의 근원신으로 신앙되다가 후대에 불교에 흡수되어 치성광여래의 右輔弼星인 北斗大星七元星君으로 그 위치가 변모한 신격이다<sup>19)</sup>. 후자의 시조에서는 그리던 님을 만나 이제나

15) 여기에 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한다.

16) 李能和 輯述·李鍾殷 譯注, 『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2000, 297면.

17) 一石本 『海東歌謠』

18) 李能和, 앞의 책, 294면 참고.

그제나 情談을 하려고 망설이다가 그만 날이 새니 北斗七星에게 三台星을 시켜 날이 더디 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三台星을 北斗七星의 差使로 본 것이다. 삼태성이 북두칠성의 별자리인 점이 확인되는 바이니 북두칠성과 관련한 별자리 신화를 검토하면서 연계적인 논의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 3. 〈北斗七星 유래담(孝不孝橋)〉과 〈七星본풀이〉

北斗七星이 생성된 내력을 전하는 이른바 〈孝不孝橋〉 전설로 알려진 자료를 하나 가져온다.

한 과부가 일곱 아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새벽이면 이슬을 맞고 집에 들어오곤 했다. 일곱 아들이 어머니가 흠아비를 매일 만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건너 다니는 개울에 먼저 가서 엎드려 다리가 되어주기로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그리 했다. 어머니가 개울을 건너면서 이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일곱 칠성이 되기를 기원했다. 어머니가 흠아비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흠아비가 일곱 아들을 없애려고 죽을병에 걸린 듯 피병을 앓았다. 점을 치니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일곱 이들이 산으로 가서 희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산짐승이 와서 간을 내어 주어 일곱 아들은 죽지 않았다. 일곱 아들이 후에 일곱 칠성이 되었다<sup>20)</sup>.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에서 칠성신이 기우와 수명, 재물을 관장하는 신인데<sup>21)</sup>, 본토에서 전승되는 〈칠성본풀이〉에서는 기우와 관련한 뚜렷한 標識가 전승되지 않는다. 七星神은 신화의 서사적 맥락과 별개로 불교 행사일

19) 석지현, 『불교를 찾아서』(4刷), 일지사, 1991, 218면 참고.

20) 박현국, 『한국공간설화연구』, 국학자료원, 1995, 174면, 〈북두칠성 유래담〉 김현덕화(여, 65세) 제보(1992), 박현국 채록.

21)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282-284면 참고.

인 七夕에 이어져 祈雨의 대상신으로 기능을 지속시키고 있는 셈이다<sup>22)</sup>. 北斗七星이 祈雨의 대상으로 자리잡은 것에는 북두칠성 자체의 속성을 그렇게 인식한 결과일 수 있으나<sup>23)</sup>, 七夕과 관련하여 기우의 성격이 더욱 부각된 것은 주변 별자리와 관련시켜 볼 때, 개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름 하늘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는 견우성과 직녀성, 그 사이에 南斗六星이 있고, 직녀성의 북쪽에 북두칠성이 있다. 북두칠성과 은하수를 경계로 畢宿가 마주한다. 전설에 따르면 南斗六星과 北斗七星은 견우와 아이들이 은하수 강물을 퍼내던 국자였다고 하므로 비(雨)가 오는 현상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다.<sup>24)</sup>

별개로 형성된 〈칠성본풀이〉나 〈북두칠성 유래담〉이 천체의 별자리와 은하수, 그리고 〈牽牛織女〉전설과 연결되면서 祈雨의 관념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불교의 칠석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祈雨와 칠성신앙이 직결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추정할 개연성은 있으나, 七星의 생성 내력을 말하는 신화나 전설에서 기우와 관련한 표지가 뚜렷하지 않으니 우리의 고유한 칠성신앙에 祈雨가 핵심적 요소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 없다.

한편으로, 이전부터 전해온 은하수와 북두칠성에 관한 사정이 있어 개울에 놓인 일곱 개의 다리가 칠성과 이어져 이런 전설이 형성되었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우에 관한 칠성신앙의 속성이 신화나 전설의 문면에

22) 七星神仰은 현재 불교 행사인 七月七夕과 관련되어 있다. 석지현, 『불교를 찾아서』(4刷), 일지사, 1991, 219면 참고.

23)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서 논의한다.

24) 한편, 畢宿(황소자리)가 비와 연결되어 비의 신인 雨師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祈雨는 여름철 가뭄에 행해지던 것이어서 여름철 별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七夕과 北斗七星과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畢宿가 가을철 霜降의 별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北斗七星과 七夕에서 연유한 祈雨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畢宿에 연결되지는 않을 듯하다.(안상현, 앞의 책, 238면 참조)

서 탈색되고 그 역할을 불교의 칠석 의식이나 민간의 기우 신앙에 넘겨주고 서사무가와 전설이 그 흔적만 간직한 채 전승을 이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피병을 부려 부당하게 일곱 이들을 살해하려 한 의붓아버지의 최종적인 행방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나 어머니의 위하여 정성을 다한 일곱 아들이 七星이 되었다고 하는 점이 부각되어 七星의 내력을 전한다.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하여 다리를 놓은 것은 어머니에게는 효이지만 죽은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되니 그 다리가 ‘孝不孝橋’가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덧붙었다. 그런데 <북두칠성 유래담>의 후반부는 호남지역 <칠성본풀이>의 서사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북두칠성의 칠성 역시 칠성신의 칠성과 동일한 신격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호남지역 <북두칠성 유래담>이 <칠성본풀이>의 서사내용을 가져와 북두칠성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둘 사이의 연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만 하는 일단 확인해 둔다.

칠성신의 역할은 삼불제석님과 다르지 않아서 광범위하여 인간사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칠성신만의 특별한 역할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 인격화된 신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 七星이라는 명칭을 제외하면 별자리 神으로서의 개별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칠성신에 관한 신화는 <蛇神七星본풀이>라 하여 다소간 특별한 양상을 띤다. 서사단락을 아래에 제시한다.<sup>25)</sup>

- (1) 장설룡, 송설룡이 無子였다가 칠성제를 드려 딸아기를 낳았다.
- (2) 딸아기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장·송 부부는 벼슬살이를 떠나고 딸아기는 여중에게 맡겨졌다.
- (3) 여중이 물 길러 나간 사이 잠에서 깬 딸아기가 부모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

25)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4) 지나가던 중(僧) 셋 가운데, 세 번째 중이 딸아기를 데리고 다니며 희롱하다가 장설룡의 집의 말판돌 아래 묻어두었다.
- (5) 장·송 부부가 벼슬을 그만 두고 귀가하여 딸아기를 찾으나 실패했다.
- (6) 권재 받으러 온 중이 번고를 일으킨 줄 알고 장설룡이 대노하여 쫓아냈다.
- (7) 딸아기를 찾았으나 이미 일곱 딸아기(뱀 일곱)을 잉태하고 있었다.
- (8) 딸아기를 무쇠 석곽에 얹히고 야광주를 물려 바다 속에 띄워 보냈다.
- (9) 무쇠석곽이 제주도 각 지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만 그 지역 堂神이 세어서 실패하고 함덕에 닿았다.
- (10) 일곱 잠수(해녀)와 남자 하나가 무쇠 석곽 속의 뱀을 보고 내던지자 모두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맸다.
- (11) 문복을 하여 신을 박대한 죄임을 알아내고 칠성새남을 하니 신병이 낫고 재물도 생겼다.
- (12) 마을 사람들이 칠성당을 짓고 위하니 함덕 마을이 富村이 되었다.
- (13) 뱀들이 都城안으로 옮겨오자 송씨녀가 집안으로 모셔 그 집안이 거부가 되었다.
- (14) 관원들이 지나다가 뱀들을 보고 더럽다며 침을 뱉자 입병이 났다.
- (15) 문복하고 진새남을 하니 병이 나았다.
- (16) 어미 뱀과 딸 뱀 일곱은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고 떠났다.

본토의 칠성본풀이와 명칭에서는 동일하나 七星의 성격이 蛇神으로 나타나 변별적이다. 본토의 칠성신이 등장하는 〈칠성본풀이〉나 〈시루말〉과 서사적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서사내용과 구성이 본토의 〈제석본풀이〉나 〈구렁덩덩신선비〉에 오히려 近似하여 특별한 자료적 성격을 갖는다. 중의 강제적 결연에 의한 여성의 수난은 〈제석본풀이〉에, 중에 의한 강제적 결연의 결과로 뱀을 출산하는 양상은 〈구렁덩덩신선비〉에 연결된다. 무쇠석곽에 넣어져 유기되는 사정은 〈바리공주〉와 닮았다. 그런 점들이 인정되기에 이 신화는 七星神에 관한 본풀이지만 상대적으로 후대에 형성된 무속신화가 아닌가 한다. 그 결과 신의 이름이나 직능, 서사내용 등이 상호 간에 긴밀하게 맞물려 있지 않은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蛇神七星은 제주도가 본디 蛇神信仰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과 연결될 수 있고, 한편으로 蛇神七星의 모태가 되는 딸아가기 본토에서 제주로 入島하면서 무쇠석곽 안에서 이미 蛇神의 형상을 띠고 출현했기 때문에 본토에서 龍蛇神의 성격을 띠는七星神의 제주 入島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제주의七星神이 모두가 女性인 점과 蛇神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양상이 주목되는데, 그렇다면 칠성신의 이러한 속성이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칠성신의 형상과 특별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北斗七星延命經〉에 의하면 北斗神君은 현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관장한다고 하며, 특히 출산과 수명을 주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칠성신앙이 七月七夕과 연결되어 불교의 큰 행사로 나타난다고 한다.<sup>26)</sup> 七月七夕은 비(雨)와 관련되는 행사이니 칠성신앙이 기우의 신앙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조선시대 昭格署의 醮祭 가운데 祈雨醮의 기사들에서 星宿醮, 金星醮, 太陰醮, 眞武醮, 直星醮 등 여타 醮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醮祭를 지냈던 사정이 확인되는 바이다.<sup>27)</sup>

“태일전에서 七星諸宿를 모시니 그 화상은 모두 被髮한 여자 모습”이라고 한 〈용재총화〉의 기록을 보면<sup>28)</sup>, 祈雨와 관련하여 여성적 원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규경의 〈五洲衍文〉에서 七星을 玄武七星이라 하고 玄武의 ‘武’는 ‘蛇’라고도 하는데 이는 허탄한 말이며, 형상이 같아서 생긴 이름이라 한 기록이 있다.<sup>29)</sup> 武와 蛇의 진위여부를 그대로 두고, 玄武와 蛇의 형상이 같아서 그 둘이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민간에서는 玄武와 蛇의 형태적

26) 석지현, 『불교를 찾아서』, 일지사, 218-219면 참조.

27) 李能和 輯述, 『朝鮮道敎史』(李鍾股 譯注), 보성문화사, 2000, 176-179면에 관계기사가 있다. 태종 재위시 16회, 세조, 예종, 성종 재위시에 1회의 祈雨醮를, 태종16년 5월에 北斗星에 祈雨醮를 昭格署에서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昭格署는 주로 星辰을 醮祭하는 곳이다. 한편, 조선시대 星宿廳과 國巫에 관하여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124-129면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고찰했다.

28) 李能和 輯述, 위의 책, 158면 참조.

29) 위의 책, 168면 참조.

유사성에 연유하여 蛇 혹은 龍蛇類의 신격과 아울러 인식했기에, 祈雨와 같은 물의 조절을 七星이 담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0)</sup> 龍蛇類 神獸가 祈雨와 관련된 사정은 다음의 몇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바이다.<sup>31)</sup>

현종 12년(1021) 5월 : 5월 경진일에 남성(상서도성) 뜰 한 가운데에 토룡을 만들고 무격을 모아 비를 빌었다.(『高麗史』 卷4 世家4 현종조)

선종 2년(1085) 4월 : 신축일에 가뭄이 오래 계속되므로 토룡을 만들고 민가에서 용을 그려 비를 빌기를 관리가 청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高麗史』 卷54 志8 五行2 金條)

인종 원년(1123) 5월 : 갑자일에 도성청에 토룡을 만들고 무당을 모아 비를 빌었다.(『高麗史』 卷54 志8 五行2 金條)

여하튼 〈사신칠성본풀이〉에서 설정한 七星의 女性的·蛇神的 形象은 〈용채총화〉나 〈오주언문〉의 기록과 대체로 부합함을 알 수 있다<sup>32)</sup>. 그런데 북두칠성이나 별자리에 관한 아래의 기록은 일견 七星과 祈雨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

오잡조(五雜組) 진류(陳留) 사조제(謝肇?)가 지은 것에 “북두성은 전해오기를 돼지의 형상과 같다고 하는데 당 나라 일행(一行)이 혼천사(渾天寺) 안에서 못 돼지를 엄폐(掩蔽)해 놓자 북두성이 보이지 않았다 한다. 일설에는 북두성은 9성(星)으로 되어 있는데 7성(星)만 보이고 2성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였다.<sup>33)</sup>

30) 龍蛇類 神格의 水神的 性格에 관해서는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401-437면의 「한국신화에 나타난 천신과 수신의 상관관계」와 拙稿,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석사논문, 1991에서 논의한 바 있다.

31) 최중성, 앞의 책, 150면에서 재인용한다.

32) 특히 제주에서는 뱀을 죽인 연유로 得病하게 되면 죽은 뱀을 살려내고 앓는 병을 고치는 곳을 하는데 이를 ‘칠성새담’이라 하고, 七星을 곧 蛇神으로 인식한다.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辭典』, 신구문화사, 1980, 490-499면의 ‘칠성새담’ 부분을 참조하라.

---

33) 『靑莊館全書』 卷54 양엽기 1, 북두성(北斗星)과 묘성(昴星).

北斗의 七星이 돼지의 형상을 했다고 하니 곰의 형상을 했다고 하는 서양의 사정과 다른 인식이다. 그런데 돼지의 형상을 했다고 인식한 것은 玄武七星의 인식과 對蹠點에 있다. 돼지와 현무 곧 뱀류는 상극에 속하니 각기 칠성의 성격을 전혀 달리 인식한 양상이다. 제주도의 토산당 七日堂系와 토산의 여드렛堂神 사이에 개재해 있는 돼지와 뱀의 대립적 양상에서 이런 사정이 뚜렷하게 확인된다.<sup>34)</sup>

그런데 北斗의 七星이 돼지의 형상을 지녔다고도 하고 玄武 혹은 뱀의 형상을 지녔다고도 인식되기에 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龍蛇類의 神獸가 祈雨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오랜 내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기록을 검토하면 해석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우제에 용을 활용하는 이른 바 ‘祈雨祭龍’ 유형 가운데<sup>35)</sup> 다음의 사례는 주목을 요한다.

연못이나 강 또는 숲이 있는 곳을 택한다. … 제단 위에는 대나무 가지를 꿰고 화룡을 늘어놓는다. 그 그림은 흰 비단 위에 그린다. … 그림의 중앙부에는 백룡(白龍)이 검은 구름을 토해 내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물결 위에 왼쪽을 돌아보고 있는 거북이 흑기(黑氣)를 길게 내뿜고 있다. … 3일 동안 비가 풍족히 내리는 것을 기다려서 수뫼지로 보답하는 제사를 지낸 후 화룡을 수중에 넣는다.<sup>36)</sup>(밑줄 필자)

북두성이 돼지의 속성을 지녔기에 북두성이 비를 오게 한 공덕을 기려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白龍과 거북(龜)이 함께 등장하여 비를 오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되니 이는 전형적인

34) 여기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拙著, 『한국창세사사시연구』, 태학사, 1999에서 했다.

35) 祈雨祭龍의 유형은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146-200면에 자세히 고찰한 바 있어 이를 계속 참고한다.

36) 『文獻通考』 권77, 郊社考10, 雩. 위의 책, 160면 참고.

玄武의 形象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北斗星의 7星은 한편으로 돼지의 형상을, 한편으로 玄武의 형상을 띤 양면적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대상에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이 혼용된 것이 된다.

한편 祈雨祭龍에 용과 여인이 함께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蛇神七星본풀이>의 七星神이 지닌 女性的·蛇神的 형상과 연결될 수 있다.

용은 가장 음란하다. 그래서 소와 교접하여 기린을 낳기도 하고, 돼지와 교접하여 코끼리를 낳기도 하며, 말과 교접하여 용마를 낳기도 한다. 여인네가 용을 만나면 욕을 당하기도 한다. 영남사람 중에 비를 잘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막을 설치하여 어린 소녀를 공중에 두고 소녀를 보러 용이 일어나도록 용을 자극한다. 그러면 곧 용은 그 소녀와 합하고자 빙빙 돌며 몸을 일으킨다. 그러나 禁制로써 용을 소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하면 곧 비가 충족하게 내리게 된다<sup>37)</sup>.(밑줄 필자)

용을 유혹하기 위하여 여자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로 용이 여자에 접근할 수 없도록 禁制를 마련해 놓았다고 했다. 용이 여자에 다가설 수 없어 찢대가 나 하늘로 치솟아 올라 큰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인 셈이다<sup>38)</sup>. 祈雨와 관련하여 龍이 등장하고 돼지가 등장하고 女子가 등장하는 모든 양상은 기우제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玄武의 형상과 돼지의 형상, 被髮한 女人의 형상은 七星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蛇神七星본풀이>의 七星神이 또한 女性이면서 蛇神의 형상을 띠고 있어 칠성신은 “玄武, 龍蛇, 돼지, 女性”의 네 가지 속성을 포괄한 별자리 神인 셈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기우의 과정에서는 용사와 여인이 등장하여 기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비가 온 이후에 그에 보답하느라 돼지를 바치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 실제 기우와 관련해서는 돼지의 속성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직접적인 요소는 龍蛇와 女人이니 이들이 함

37) 『五雜俎』卷9 物部1. 위의 책, 169면에서 재인용.

38) 같은 책, 같은 곳.

계 비를 오게 하는 두 가지 핵심적 요인일 따름이다. 북두의 칠성은 단일한 속성을 지니지 않고 복합적 속성을 아우른 존재여서 기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북두성이 지닌 돼지의 속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일종의 돌제(豚祭)를 지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龍飛御天歌’ 43장에도 “玄武門 두 도터 훈 사래 마즈니 希世之事를 그려 보시니이다<sup>39)</sup>”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현무문 앞의 돼지 두 마리가 하나의 화살에 맞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무와 돼지의 특별한 관계들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우와 관련하여 돼지와 여인이 등장하는 漢代의 기록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남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장이 2-3尺이며 벌거벗은 몸에 눈은 머리 위에 붙어있고 바람처럼 달린다. 이름을 鼠段 라 하는데 (그녀가: 女魃) 가는 나라에는 큰 가뭄이 든다. 格子라고도 일컬어지며 市朝의 무리들 사이로 잘 다닌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뒷간에 그를 던져버리니 이에 죽어 가뭄의 재난이 해소된다.<sup>40)</sup>

벌거벗은 女魃을 廁間에 던져 죽이는 행위에 관하여 아래의 해석이 주목을 요한다.

漢代의 뒷간은 明器에서도 확인되듯이 돼지우리로도 기능했는데, 돼지와 똥이 陰氣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女魃을 뒷간에 던지는 것은 陰氣地域에 던져 그가 체현한 陽氣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女魃을 물속에 던지거나 또는 女魃로 하여금 북쪽으로 가라는 것(神北行)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39) 허용, 『龍飛御天歌』(중판), 정음사, 1990, 194면.

40) 『神異經』〈南荒經〉, “南方有人 長二三尺 袒身 而目在頂上 走行如風 名曰鼠段 所之國大旱 一名 格子 善行市朝衆中 遇之者投著廁中 乃死 旱災消” 李成九, 『中國古代的 求雨習俗과 徒市』, 『古代中國의 理解』 5, 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편, 일지사, 2001, 111면에서 재인용하되 번역을 손질한다.

---

41) 이성구, 앞의 논문, 112면.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별거벗은 女魃의 형상이고, 다음으로 廁間에 던져 죽여 가뭄을 해소한다는 사실이다. 곧 祈雨의 習俗을 말하는 것인데, 앞서 인용한 “태일전에서 七星諸宿를 모시니 그 화상은 모두 被髮한 여자 모습”이라고 한 『용재총화』의 기록과 별거벗은 女魃의 형상이 묘하게도 겹쳐진다. 그런데 용재총화의 被髮한 여자의 화상은 祈雨의 중요한 매개체이고 『神異經』의 별거벗은 女魃은 旱魃의 원인이 되는 존재이니 그 성격이 상반된다. 七星의 못별이 우리네 신앙에서 기우와 직결되어 있으니 피발한 여자가 七星의 못별과 연계되어 비를 오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칠성의 못별들이 실제로 기우의 소망을 해결해주는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피발한 여자의 畫像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 형상을 특별한 방식으로 의례에 활용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神異經』의 기록처럼 그 畫像을 燒去하는 식의 절차가 혹시 존재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진다. 여발을 측간에 던져 한발을 제어하면서 기우를 염원하는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여발의 형상이 피발한 여자의 형상으로 전승되어 본래적 기능이 변화되어 칠성신앙의 기우 대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여 당시의 기록에까지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칠성신앙이 중국에서 전래된 도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태일전의 七星諸宿에 대한 의례가 상층의 것일진대 漢代의 양상을 연계시키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핀 기우제에 龍과 거북이 등장하고 被髮한 女人이 등장하고 돼지가 등장하는 양상을 漢代의 기록과 포괄하여 생각하면 돼지의 역할도 기우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sup>42)</sup>

칠성신에 관한 우리네 신화에서는 칠성신의 기능이 포괄적이어서 특별하게 기우와 관련된 양상을 찾기 어렵다. 다만 제주의 〈사신칠성본풀이〉는

42)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이런 추정을 하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한다. 근거자료를 찾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

칠성신의 형상이 女性이고 蛇神이어서 칠성신앙의 구체적인 사례와 상응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서사적 전개양상은 尋父談의 측면이나 강제적 결연의 양상은 <제석본풀이>와 가깝고, 뱀과 교접하여 뱀을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민담 <구렁덩덩신선비>와 연결된다. 서사적 내용의 기원이나 형성에 있어 어느 쪽이 먼저인가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칠성신의 면모를 실제 칠성신앙과 다르지 않게 설정한 점에서 칠성신의 내력을 풀어낸 신화로서 그 성격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 4. <삼태성>과 <북두칠성 유래담>, 그리고 <제석본풀이>와 <칠성본풀이>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삼태성>과 <제석본풀이>, 그리고 <북두칠성 유래담>과 <칠성본풀이>는 각각 서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삼아 논의의 확대를 시도한다.

서대석의 기존 연구 성과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서대석에 의하여 <제석본풀이>는 고구려 건국시조인 <朱蒙神話>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승지역의 편차와 서사적 내용, 構成上의 相同性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sup>43)</sup>.

朱蒙은 解慕漱의 혈통을 이은 태양신 숭배집단의 우두머리이다. 해모수가 五龍車를 타고 人世下降하는 장면이 日出光景에 비견된다고 하거니와<sup>44)</sup>, 주몽의 부계 혈통을 五行으로 볼 때, <동방- 해(日)-靑龍-木>의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解慕漱가 까마귀 깃털 장식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東方의 日神의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낸다.<sup>45)</sup>

43) 徐大錫, 「帝釋本풀이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 서대석, 앞의 책, 1988의 1장 <제석본풀이 연구>. <제석본풀이>와 <주몽신화>의 상동성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서대석의 기존 성과를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한다.

44) 위의 책, 1988, 89-102면.

金蛙와 朱蒙의 관계에서 초기에 朱蒙이 金蛙의 아래에 있었으니 金克木의 형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朱蒙의 死後에 黃龍이 등장하는 기사는 一國의 建國主로서 천하를 평정한 인물이 된 이후 五行의 中心方位에 해당하는 黃龍으로 거듭난 결과로 볼 수 있다<sup>46)</sup>. 청룡에서 황룡으로의 상승은 황룡 등장 기사에서 청룡의 표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그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골령에 황룡이 나타나고 또한 골령 남쪽에 나타난 상서로운 구름이 푸르고 붉은 기운을 띤 것이 그것으로<sup>47)</sup>, 청룡에서 황룡으로 변화하는 복합적 성격을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金蛙 등의 他勢力을 제압한 이후의 양상이다.

앞서 연변 조선족 전승의 〈三台星〉 신화에서, 해를 삼킨 黑龍은 五行의 北方과 물(水)에 대응되는 검은색을 띠며, 黑龍潭이란 곳에 거처하면서 東方의 해(火)를 삼켰으니 그 양상이 水克火에 해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東方이 해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四神圖에서는 四靈 가운데 靑龍에 해당하는 방위여서 해를 삼킨 흑룡은 靑龍을 제압한 黑龍의 양상으로 도치환하여 파악한 바 있다. 태양을 수호하고 밤하늘을 지키는 三台星이 東에서 西로 流行하기 때문에 三台星은 다분히 〈東方-태양-火〉의 속성을 지녔으나, 黑龍을 제압하고 해를 다시 회복시켰기에, 水를 제압할 수 있는 양상 곧 ‘土克水’가 되어야 신화적 발상과 설정이 자연스러워 짐을 지적하면서 土가 四方位 가운데 中央에 해당하며 黃色을 상징하는 점을 들어 黃龍이 黑龍을 제압한 형국으로 살폈다. 이렇게 보면 “靑龍<黑龍<黃龍”의 양상이 되어 朱蒙이 靑龍의 속성을 지녔다가 黃龍의 권위를 확보하는 양상과 近似하게 연결된다. 투쟁의 대상이 다른 점이 있으나 주몽이나 삼태성이

45) “首載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劍” 李奎報, 〈東明王篇〉

46) “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岡黃龍負乘天” 〈廣開土王碑文〉 第1面 3-4行. 전호태, 고구려의 五行信仰과 四神圖, 『國史館論叢』 48, 1993, 43-97면의 논문에서 황룡과 오행을 연결시켜 논의했으나, 청룡과 주몽과는 연계시키지 않았다.

47) “三年春三月黃龍見於鵲嶺秋七月慶雲見鵲嶺南其色靑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3年條.

청룡에서 황룡으로의 변화·상승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어 둘 사이의 친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삼태성과 흑룡의 대결과 견주어 朱蒙과 金蛙의 대결에 주목한다. 金蛙는 금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鯤淵’이라는 연못에서 출현하여 동부여의 시조가 되었고 주몽과 패권을 다투었던 존재이다. 개구리(蛙)는 달동물(Lunar Animal)이면서 西方을 상징하고 金 역시 五行 가운데 西方을 상징하니 金蛙는 西方 혹은 가을, 白色과 연계되는 속성을 지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鯤淵이라는 出自處는 金蛙가 물(水)을 제어하는 水神的 성격을 지닌 존재임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河伯이 柳花를 귀양보낸 우발수가 金蛙의 신하인 漁師가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金蛙가 개구리의 형상을 한 水神·月神系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金蛙는 소위 말하는 여성적 원리나 달의 원리를 구현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동부여계 出自의 인물로 볼 수 있는 淵蓋蘇文의 경우도<sup>49)</sup> 姓氏 ‘淵’ 혹은 ‘泉’을 통하여 물과의 관련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주몽은 江의 신인 河伯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金蛙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日神과 水神, 그리고 月神의 성격을 아우르고 黃龍으로 거듭나 제왕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신화에서 대체로 月神과 水神은 가뭄과 홍수 따위의 조절에 관련되기 때문에, 金蛙가 그런 속성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金蛙는 水神과 月神의 성격을 함께 지녔다고 인정되기에 그 신화적 성격은 앞서 살핀 <사신칠성본풀이>의 칠성신의 성격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개구리와 蛇神이 모두 달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런 점이 부각될 수 있으나 신화의 서사적 내용이 서로 달라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다만 金蛙가 四方位 體系에서 西方을 점유하고 있어 개구리의 형상과 아울러 그 양상을 보면 장천 1호분의 ‘日月七星圖’(그림 7 참조)의 西壁에 그려진 두

48)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411-412면 참고.

49)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1부 1장 참조.

꺼비 그림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장천 1호분의 日月七星圖에는 北斗七星을 중심 모티브로 묘사되어 있는 七星壇이 그려져 있다.<sup>50)</sup> 김일권은 七星壇에 묘사된 그림이 禮佛의 형상이라면 이는 불교의 사찰 속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七星閣 信仰의 原型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sup>51)</sup>, 그렇지 않다면 道敎的 七星 또는 七星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전통적 信仰性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한 바 있다<sup>52)</sup>.

이를 근거로 하면 金蛙의 속성 곧 ‘西方-개구리-白色’이 北斗七星과 함께 묘사된 七星壇 그림에 포함되어 七星神仰과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金蛙가 곧 칠성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칠성신앙의 범위 안에 〈金蛙神話〉가 지닌 몇 가지 속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칠성단 그림의 東壁에는 三足鳥가 있다. 三足鳥는 태양 속에 사는 神鳥이니 西壁의 그림과 대응된다고 하겠는데, 北斗七星을 중심으로 七星神仰과 관련된 七星壇 그림에 三足鳥가 함께 그려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해석은 이와 관련하여 경청할 만하다.

50) 김일권, 앞의 논문, 2002, 68-69면에서 기존에 禮佛壇이라 칭하던 것을 七星壇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합당하다고 보아 그 명칭을 따른다.

51) 사찰에서는 삼성각(三聖閣, 三聖庵) 또는 칠성암(七星庵) 등을 주신(主神) 없이 독립적으로 세우고 삼성(三聖)을 봉안하였다. 삼성이란 곧 칠성(七星)·산신(山神)·독성(獨聖)을 가리키며 그 외에 칠성을 의미하는 북두각(北斗閣) 또는 북극보전(北極寶殿)이라고도 하였다. 이 칠성각에는 중앙에 북극성에 해당하는 금륜보계치성광여래불(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이 있으며 좌우에는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있고 그 밖에 칠성여래(七星如來)와 칠원성군(七元星君) 및 3태6성28수(三台六星二十八宿) 등이 봉안되어 있다. 칠성여래는 약사칠불(藥師七佛)로 수명장수·재액소멸·기자(祈子) 등 가정에 있어 필요한 것은 모두 관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칠성은 인간의 길흉화복은 물론 수명 등을 관장한다 하여 민간에서 이를 목적으로 신봉하였다. 칠성은 도교(道敎)에서는 칠원성군(七元星君)이라 하였는데 중국 불교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의 수적(垂迹)으로 보고 이를 팔칠성여래불이라 하였다. 칠성신앙은 불교와 도교가 합쳐지긴 했으나 민간신앙으로서 전국적으로 유포되었다. 가정에서는 뒤뜰에 칠성단(七星壇)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또는 장독대나 필요에 따라 반상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소원성취를 위해 치성을 드렸는데 주로 기자(祈子) 또는 수명에 대한 기원을 하였다. 또 새벽에 불설북두연명경(佛說北斗延命經)이나 이십팔수신장편(二十八宿神將篇)을 외우기도 하였다. 유동식, 『韓國巫敎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1978, 268면 참고.

52) 김일권, 앞의 논문, 같은 면.

고대중국의 동방지대에는 스스로를 鳥頭의 俊神이나 太陽鳥의 후예로 자칭하는 종족집단이 존재했다. 帝俊은 태양 속에 있는 駿鳥이며 三身國을 낳은 아버지인데, 태양 속에 있는 駿鳥는 바로 三足鳥이므로 三足鳥가 나타나면 가뭄이 든다는 것은 帝俊이 나타나면 가뭄이 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sup>53)</sup>

三足鳥는 太陽鳥이면서 旱魃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해석이 주목된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장천 1호분의 日月七星圖에 三足鳥가 그려진 것이 단순히 方位의 상징을 넘어서 북두칠성과 관련한 칠성신앙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더불어 禮佛하는 모습을 그린 壇이 七星神仰과 관련된 七星壇임이 보다 분명해진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西壁의 두꺼비 그림은 東壁의 三足鳥에 대응하는 의미, 곧 한발에 대응하는 洪水 따위의 의미를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금와의 출자처인 ‘곤淵’이 공교롭게도 무당의 신경을 지칭하는 ‘곤을’과 상통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면 금와의 수신적 성격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개 고구려어에서 물을 뜻하는 연이나 천은 ‘어을’ 혹은 ‘을’로 발음되었다고 하거니와<sup>54)</sup> 그렇다면 鯤淵과 곤을은 공통적으로 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곤을의 背面에 일월칠성이나 일월성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편으로 거울과 기우의 관련성이 중국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연계해 보면<sup>55)</sup> 금와가 기우와 관련한 기능을 지녔을 가능성도 고

53) 이성구, 앞의 논문, 104면.

54) 李基文, 『國語史概說』(改訂版 19刷), 탑출판사, 1986, 33면.

55) 『異聞錄』(李守泰)의 “양주에서 水心鏡 하나를 바쳤는데, … 뒷면에는 꿈틀거리는 용이 새겨져 있어 길이가 석 자 네 치 다섯 푼인데, 그 형세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라는 기록과, 『三水小牘』(元稹)의 “누대에 오르고 난 후 요리사가 그것(잉어)을 갈라 배속에서 거울 하나를 얻었다. … 뒷면에는 雙龍이 은은히 새겨져 있는데, 비록 작긴 하나 비늘·수염·발톱·뿔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용과 거울의 친연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거울이 그 자체로 용과 동일시되어 기우제의 신물이 되기도 하면서 그 기능을 구체화한 사정은 “천보 7년 秦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도사 葉法善의 계책에 따라 거울을 놓고 기우제를 지냈더니 즉각 효험이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0의 제3부 7장의 「거울의 도교적 기능과 그 문학적 수용」 참고.

려해봄직 하다고 생각된다.

장천 1호본의 日月七星圖는 東壁에 旱魃의 원인, 西壁에 洪水의 원인을 대응시켜 그려놓고, 그 가운데에 북두칠성을 위치시켜 고구려인들의 전통적인 七星神仰이 과도한 旱魃과 洪水를 제어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北斗의 七星이 被髮한 女人의 형상과 玄武 혹은 玄蛇의 형상, 돼지의 형상 등 일견 상충되는 양면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면에, 한발과 홍수를 제어하는 북두칠성의 양가적 기능과 관련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신화적 문맥에 한정해 보면, 三台星 역시 北斗七星의 명을 받아 움직이면서, 동시에 태양을 보호하되 과도한 旱魃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서쪽으로 유행하면서 西方의 과도한 홍수도 태양신적 속성(三足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삼태성이 북두칠성의 양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적 별자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 5. 결언에 대신하여

제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우선은 〈삼태성〉-〈제석본풀이〉-〈주몽신화〉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두칠성 유래담〉-〈칠성본풀이〉-〈사신칠성본풀이〉-〈금와신화〉와의 계열을 설정해 보았다.

본고는 구비전승되는 별자리 신화인 〈삼태성〉과 〈북두칠성 유래담〉을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서사적 연계성을 보이는 〈제석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포괄하여 별자리 신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찰했다. 나아가 〈삼태성〉-〈제석본풀이〉-〈주몽신화〉의 계열과, 〈북두칠성 유래담〉-〈칠성본풀이〉-〈사신칠성본풀이〉-〈금와신화〉와의 계열을 설정해 보았다.

前者의 계열은 〈삼태성〉과 〈제석본풀이〉, 〈삼태성〉과 〈주몽신화〉와 상관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고찰했다. 또한 〈제석본풀이〉가 〈주몽신화〉와

연계되기에 <삼태성> 신화의 두 가지 양상이 개별적이지 않고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후자의 계열은 <북두칠성 유래담>과 <칠성본풀이>, <사신칠성본풀이>와 <금와신화>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칠성신앙의 양상을 고찰했다. 그 결과 칠성관련 신화가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에 연결되어 있는 양상과 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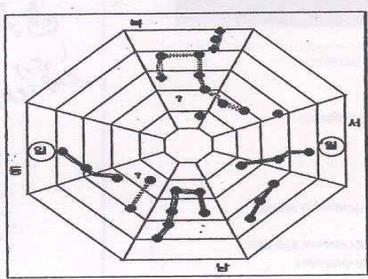
<삼태성> 신화 가운데 한 자료는 삼태성의 생성 내력과 유행 경로를 전하고 있어서, 실제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서 삼태성의 위치와 연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삼태성이 된 삼형제가 흑룡을 제압하는 양상이 靑龍에서 黃龍으로의 변화·상승의 의미를 지녀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금와와 대결하는 양상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태성>의 다른 한 자료는 무속신화 <제석본풀이>와 서사적 내용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제석본풀이>의 아들 삼형제 곧 삼불제석신과 <삼태성>의 삼형제가 모두 삼태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고, <제석본풀이>의 제석님이 천신이고 태양신인 점이 함흥의 <삼태성>에서의 神僧과 그 성격이 잇닿아 그 아들들 곧 三佛帝釋과 三台星이 같은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의 특별한 기능을 신화의 내용 속에 전승하지 못한다. 북두칠성의 유래를 전하는 자료에서 <칠성본풀이>와 서사적 내용이 거의 유사한 자료가 있어 <삼태성>과 <제석본풀이>의 같은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무속신화가 별자리 유래담을 통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신칠성본풀이>에서 칠성신의 여성적·蛇神的 면모가 나타나 칠성신앙에서 인식된 칠성신의 모습과 견주어 논의했다.

<삼태성>이 <제석본풀이>와 연결되고 한편으로 <주몽신화>와도 연결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주몽신화>를 매개로 다시 <금와신화>를 포괄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그 결과 장천 1호분 日月七星圖의 七星壇을 근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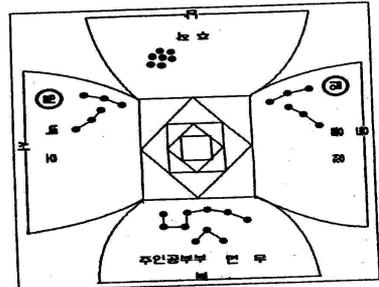


(그림 3)



각저총 성수도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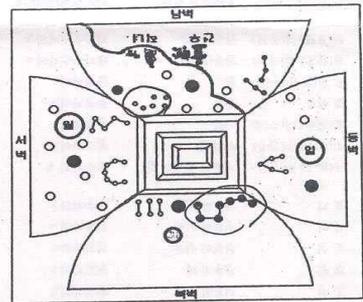
약수리 고분 성수도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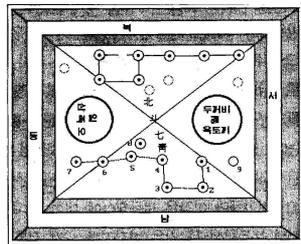
덕흥리 고분 성수도

(그림 6)



선암사 칠성탱화

(그림 7)



장천 1호분 일월칠성도

## 참고문헌

- 김명환 수집·정리, 『민담집 삼태성』, 연변인민출판사, 1983, 1-268면.
-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고찰」, 『백산학보』 47, 백산학회, 1996, 51-106면.
-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관념체계 연구」, 『진단학보』 82, 1996. 12. 1-34면.
- 김일권, 「고대인의 천문우주관」, 『강좌 한국고대사』 8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25-97면.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1-551면.
- 박중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1999, 1-411면.
- 박현국, 『한국공간설화연구』, 국학자료원, 1995, 1-296면.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3판), 문학사상사, 1988, 1-420면.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1-579면.
- 석지현, 『불교를 찾아서』(4刷), 일지사, 1991, 1-398면.
- 손진태, 『한국민화에 대하여』(김현선 외 공역), 도서출판 亦樂, 1-245면.
-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4쇄), 현암사, 2002, 1-336면.
- 유동식, 『韓國巫敎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1978, 1-380면.
- 윤이흠 외, 『고려시대의 종교문화』, 서울대출판부, 2002, 1-182면
- 李基文, 『國語史概說』(改訂版 19刷), 탐출판사, 1986, 1-264면.
- 李能和 輯述·李鍾殷 譯注, 『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2000, 1-511면.
- 李成九, 「中國古代的 求雨習俗과 徒市」, 『古代中國의 理解 5』, 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編, 일지사, 2001, 63-125면.
- 임석재·장주근, 『關西地方巫歌』, 문화재관리국, 1966, 1-660면.
- 전호태, 「고구려의 五行信仰과 四神圖」, 『國史館論叢』 48, 1993, 43-97면.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0, 1-330면.
-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1-416면.
-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1-406면.
- 허용, 『龍飛御天歌』(중판), 정음사, 1990, 1-352면.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969면.

\* 본 논문은 4월 20일에 투고되어 5월 20일에 심사완료하고 5월 30일에 게재를 확정하였음.

<Abstract>

## About Oral Narrative of <Samtaeseong(三台星)>and <Bukduseong(北斗七星)> Myths

-Relation between shamanism and national foundation myth and their religious aspects-

Park, Jong-S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Approaching studies from oral narrative constellation myths <Samtaeseong(三台星)> and <Bukduseong(北斗七星)>, including also <Jeseok-bonpuri(帝釋본풀이)>and <Chilseong-bonpuri(七星본풀이)> which are showing narrative connections with them, this article studies functional aspects of constellation spirits. In addition, I tried to classify correlational categories of <Samtaeseong(三台星)>-<Jeseok-bonpuri(帝釋본풀이)>-<Jumong myth(朱蒙神話)>, and <Bukduseong(北斗七星)>-<Chilseong-bonpuri(七星본풀이)>-<Sasinchilseong-bonpuri(蛇神七星본풀이)>-<Keumwa myth(金蛙神話)>.

From the former category, correlations between <Samtaeseong(삼태성)>and <Jeseok-bonpuri(帝釋본풀이)>, <Samtaeseong(삼태성)>and <Jumong myth(朱蒙神話)> were studied. By analyses that <Jeseok-bonpuri(帝釋본풀이)> has correlation with <Jumong myth(朱蒙神話)>, I could confirm that <Samtaeseong(삼태성)> myth's two aspects are not separated but correlated with shamanism myth and national foundation myths.

From the later category, correlations between <Bukduseong(북두칠

성)〉and 〈Chilseong-bonpuri(七星본풀이)〉, 〈Sasinchilseong-bonpuri(蛇神七星본풀이)〉and 〈Keumwa myth(金蛙神話)〉 were studied together with aspects of faith to the Big Dipper. As results of these studies, aspects and signs could be confirmed that myths having relations with Big Dipper are related to shamanism myth and national foundation myths.

Though this article is studied on the limited basis of materials, I could see possibilities that Korean constellation myths are related to Korean mythic net.

Key Word : Constellation Myth, Shamanism Myth, National Foundation Myth. Samtaeseong(삼태성), Jeseok-bonpuri(帝釋본풀이), Jumong myth(朱蒙神話), Bukduseong(복두칠성), Chilseong-bonpuri(七星본풀이), Sasinchilseong-bonpuri(蛇神七星본풀이), Keumwa myth(金蛙神話), Faith to the Big Dipper(七星信仰)